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일깨우다

인천시교육청, '2016 생명사랑·휴먼에버그 페스티벌' 개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생명사랑, 휴먼에버그 페스티벌이 지난 9월 9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철영)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라는 주제로 생명사랑과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휴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많은 문화예술 관련 공연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운

영했다. 이날 1부에서는 식전행사로 인천관수고등학교의 사물놀이공연과 더불어 연승고등학교와 논현고등학교의 생명사랑 및 휴먼에버그 선서, 인천논현고등학교의 플래시몹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인천논현고등학교 학생들은 플래시몹을 따라하는 등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2부 공연에서는 오기라나, 콰콤 연주파를 올렸다. 그 뒤를 이어 전자비올라와

힐랜드스, 뮤지컬, 비보이, 댄스, 오케스트라, 아카펠라 등으로 공연이 진행됐다.

전시 및 체험 마당에서는 저승체험, 키네이션과 팔찌만들기, 책감리 만들기 등을 비롯한 많은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이날 5개 이상의 체험부스를 체험한 학생들에게는 휴대 폰 보조배터리가 주어졌다.

인천교육청 연재경 평생교육과장은 "2015년에 이어 기획, 운영한 이번 페스티벌이 생명사랑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자존감을 높여 정신건강의 자기주도적 회복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체험을 통한 휴먼예방 교육은 점차 늘어나



는 청소년 휴먼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콰콤 a1ex@naver.com

학생기자마당

소록도 100주년, 희망의 꽃봉오리 피어오른다

2016년을 알린 소록도는 기쁨을 넘어 사투리 강감까지 곱씹었다.



김현종

길고 고난과 인내의 시간은 마침내 결이 맺고 향마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에는 차차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록도의 역사를 담은 한센병 박물관이 개관했다. 한센병 박물관은 그야말로 소록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한센병에 대해 아직도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한센병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오랜 시간 오해와 편견 속에서 차별과 핏발을 겪어왔던 한센병 환자들과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는 곳, 다양한 유물 속 한이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국립소록도병원의 역사 등 소록도의 주요 요소들을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다.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은 한센병을 치료됐다고 치료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한센인들에게 차별과 오해로 얼룩진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센인들에게 지난 100년 중 약 40년은 지옥이었다. 지난 7월 30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잘 나왔던 내용으로 1916년 2월 소록도 자택의원이 개원함과 동시에 한센인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단종수술을 받아야 했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감금, 추행을 당했으며 죽은 후에

는 시체가 해부되어 연구용으로 쓰였다.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를 강제로 꺼내서 연구용으로 쓰는 등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잔혹한 짓을 한센인들에게 해서림없이 행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전체가 광복에 기쁨에 휩싸였으나 소록도만은 예외였다.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자신들에게 사치권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자신들의 인권을 걱정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당했으며, 1941년 벌어진 개구리 실험 실종 사건의 법인으로 지목되어 언론사의 추종성 기사에 의해 고문받았다. 광복과 동시에 상처를 겪어오던 소록도에는 편박이 못됐고, 한센인들의 상처는 점점 깊어졌다.

한센병 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세월의 상처는 글자씩 들어갔다. 그런 그들을 위해 상처를 받고, 봉대를 감고, 오랜 시간 목욕기 결을 지켜준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 덕분이라고 한센인들은 자신의 상처를 마추 볼 수 있게 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상처로 얼룩진 한센인들의 가슴속에 행복과 희망이라는 감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더 이상 봉사단 뜰라고 가버리는 날이 아닌 한센인들과 마음으로 교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있기에 소록도는 더 이상 상처로 얼룩진 편견의 섬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희망의 섬이다.

지역의 명품학교로 발돋움 하자

인천용학초, 개교식 가져

인천용학초등학교(학교장 김미숙)는 9월 1일 오전 9시 30분 강당에서 개교식을 가졌다. 인천광역시 남구 용정공영로 83번 길 9에 자리 잡은 용학초등학교는 2016년 9월 1일 자 28개 학급 566명으로 개교했다.

행사에서 교장, 교감 외에 모든 교사가 용학 어린이들과 한자리에 모여 개교식을 축하했다.

이날 김미숙 교장은 "인천용학초등학교가 명품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용학 교육가족과 함께 차근차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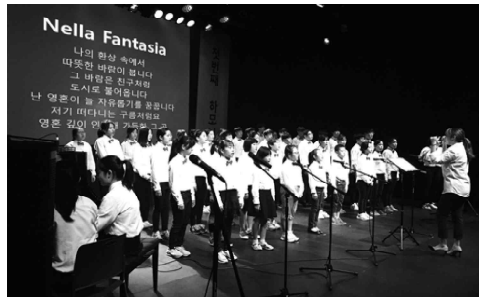
더불어 10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인

천용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1회 입학식이 있었다. 4학급 100명의 원아와 함께 나란히 앉은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앞으로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차 있었다.

"빛나는 인천용학초등학교"라는 슬로건을 시작으로 전 교직원들 8시 10분 용학가족들이 인사로 시작해 15시에는 교직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교사들과 함께 모든 교직원이 청렴실현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인천용학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바르고 창의적인 학생을 육성하는 신성장모델의 열정과 스토리 생각하고 더불어 행동하는 학생들의 노력,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천 남구 용학동, 학동지역의 명품 학교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성 기자 as@



우리들의 첫 번째 하모니

인천 남구 8개교 학교 간 연계사업 '행복UP합창단' 발표회

인하사대부속중학교(교장 이동섭)는 9월 1일 18시부터 20시까지 인천 남구 학산소극장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간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행복UP합창단' 첫 번째 하모니 발표회를 했다.

'행복UP합창단'은 남구(송의-유원)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8개교 연계사업으로 남구교장의 지원을 받아 인주중학교를 중심으로 송의초, 용원초, 유원초, 선화여중, 인현남중, 인하사대부중, 인화여중이 함께 참여했다.

최기희(중앙대 석과) 지휘자의 지도로 학교당 5-6명씩 총 42명의 학생이 무더운 더위를 이겨내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연습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3개교(용원초, 선화여중, 인화여중)의 관중공연과 각 학교 사업 담당자 및 대학생 봉사자가 도움을 줬다.

참여 학생의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해 넉넉으로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과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남구의회 의원, 남구청 평생학습학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줬

다. 남구(송의-유원) 지역 학교 간 연계사업은 2011년에 발생한 2014년까지는 변화 그리기 '동네한바퀴'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행복UP합창단'을 창단해 각 학교 학생들이 합창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긍정적 자아상 및 성취감을 기질 수 있도록 했다.

중심학교이자 개최사를 한 인주중학교 심상철 교장은 "각자 개성이 뚜렷한 학생들이 모여 서로 배려하고 나누며, 화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했으며, 합창단에 참가한 학생은 "합창단 친구들, 선주배들과 아주 친해졌는데 이제 못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해 학교 간 연계사업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

앞으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자유롭게 펼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인천성 기자 as@

슬리언 드래상담과 함께 하든

Wee클래스 상담주간

저희가 우울한 일삼, 자괴적인 공부,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삼, 간단한 친구사이로 끝나는 일삼을 통해서 자존에 대해 알고 싶은 친구!
모든모두 Wee클래스로 오세요. 학생, 스토리, 후송, 기록, 친구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원은 직접 Wee클래스에서 상담합니다. 드래상담사 100여명에게 상담합니다.
(단체 상담도 가능합니다. 친구가 Wee클래스를 소개해주세요)

♥ 슬리언과 함께하는 (친구사랑주간) ♥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을 드려요! ♥

- 1) 우정사전 테스트: 친구들과 Wee클래스에 방문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사랑, 사진, 동영상 보내주세요.
친한 친구들에게 사랑 받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 2) 고만고만: Wee클래스에 비친 친구들에게 고만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고만고만 해주세요.
고만고만 해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사주세요.
- 3) 우정의 용기: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드래상담사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 4) 견단 사랑사: Wee클래스에 비친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해도 받아주세요. 사랑을 나눠주세요.

기간: 9월 19일 월 - 9월 23일 금 (정시시간-6시 쉼 시간)
Welcome to Wee class! ♪ Wee class는 3층에 있어요!

즐거움 학교문화 조성하자

인천해송고, '슬리언 드래상담'과 함께하는 친구사랑주간 진행

인천해송고등학교(교장 이원우) Wee클래스(상담실)에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과거 교육관계 등 적응장애이러 학생, 학업중단(취기) 학생, 복교생, 전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상담이 이뤄지며 지역 내 상담 관련 유관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교생활, 정서적 고민 관련 상담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이번 상담주간에는 '슬리언드래상담' 동아리 학생들과 '친구사랑 주간'을 운영해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해 있다고 한다.

친구들과 우정을 표현한 사진을 찍는 '우정사전 테스트', '학년별 응원원의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는 '응원의 롤링페이퍼', '계시간에 고민을 적고 답변을 해주는 '고민이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해주는 '간단 심리검사'가 그것이다.

상담기간 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Wee클래스에 전문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 학생들이 보다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성 기자 hcdms7559@naver.com

나보다는 우리라는 이름

목포교육지원청, 관심과 배려 충만한 학교 만들기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선미)에서는 9월 13일 목포동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키우고 관심과 배려가 충만한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유관기관 합동 생명존중 등락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예방,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되었으며, 학생과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목포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유관기관 15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한 배려와 소통의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목포동초등학교는 9월 7일부터 일

주일까지 생명존중 교육주간 동안 생명사랑 구호 제작, 하이퍼바드 하기, 퍼켓킹으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달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명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주변의 어려운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선미 교육장은 "나보다는 우리를 위한 공동체 교육을 확대하여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공조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범 기자 hsb@

청담동 도심형 품격주택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청담동의 대륙!

국내 유일의 최고급 빌라단지 정중앙!
최고의 입지! 파격적 조건! 합리적 가격!
모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유치원 입점

SAT 교습 입점

아파트 입점

2023년 입점

국가기표 상환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청담대표상가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540-1160

신원아파트도시 마인